

현장과 시각

할머니와 오다기리 조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얼마 전 예술영화 상영관인 광주극장에서 만난 73세 동갑내기 할머니들은 '유쾌한 충격'이었다. 예술영화 전문관은 젊은 영화광들의 아지트 아니던가. '할머니와 예술영화?' 웬지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편견을 할머니들은 '시원하게' 날려 주었다.

광주극장 단골인 할머니들은 오다기리 조 주연의 '도쿄 타워'에 감명받고, 인디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운 '윈스'에, '합창교향곡'이 심금을 울렸던 '카링 베르벤'에 행복해했다.

할머니들은 중국식 실락원에서 자장면을 먹거나 팔죽으로 점심을 마친 후 광주극장 2층 '전용석'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곤 한다.

당시 기사를 나간 후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왜 그 좋은 걸 혼자만 다니느냐. 나도 데리고 가달라"는 친구·동생들 전화부터 "모임을 정식으로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남편의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다고 했다.

일곡도서관 연극 교실에 참여한 할머니들을 만난 것도 신선했다. 여주인공을 맡은 75세의 할머니를 비롯한 출연진들은 난생 처음 해보는 연기에 푹 빠져 있었다. 가족들 앞에서 발표회까지 갖고 나니 진짜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요즘 노인들의 문화 욕구는 크고 다양하다. 하지만 지역 문화계는 한창 뒤쳐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사실, 문화계만 뒷날 일도 아니다. 기자 역시 앞의 사례가 인상 깊었던 게 "노인들은 국악 공연이나 보는 것 아닌가"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지역 문화계를 취재하다 보면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기획력'이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그래도 나온 편. 가장 빈곤함을 드러내는 게 바로 노인 프로그램이다.

일단 노인 관련 행사는 '국악'과 연결돼 있다. 관소리 한대목, 살풀이 한 자락, 사물놀이... 아니면 트로트 가수 초청 공연.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다. 문화교육도 마찬가지다. 풍물 강습, 노래교실이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전양자 등 중견배우와 노인들이 참여한 뮤지컬 '러브'가 연장 공연중이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배우가 된 평범한 노인들은 새로운 인생을 만끽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을 울렸던 강풍의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연극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였다. 우리 나이에 지금 헤어지면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카피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70대 후반의 폐지 줍는 송씨 할머니와 유부 매달하는 김씨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이다.

봄이 시작되면서 지역 문화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는 지역 은빛 세대들의 감성을 일렁이게 할 '색다른' 문화상품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힐러리 '카운터 펀치' 부활

오하이오·텍사스·로드 아일랜드 경선 승리 공화당, 매케인 후보 확정 본선 경쟁 선언

미국 대선 '미니 슈퍼화요일' 결전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전략지역인 오하이오와 텍사스에서 모두 승리,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독주에 급제동을 걸며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11월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힐러리는 4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의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오하이오(대의원 141명)에서 오바마를 55%대 43%(개표

율 86% 현재)로 누르고 승리했으며, 텍사스주(대의원 193명)에서도 51%대 48%(개표율 76%)로 신승, 극적인 추격의 전기를 잡았다. 로드 아일랜드(대의원 21명)에서는 힐러리가, 버몬트(대의원 15명)에서는 오바마가 각각 승리했다. 이로써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와, 첫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힐러리가의 패배는 경선 레이스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CNN은 '미니 슈퍼화요일' 직후 오바마 1천378명, 힐러리 1천269명이었던 확보 대의원 수가 경선 후엔 오바마 1천424명, 힐러리 1천341명으로 잠정 집계돼 두 후보간 대의원 격차가 109명에서 83명까지 좁혀진 것으로 추산했다. 힐러리는 텍사스와 오하이오 두 곳에서 4개주 모두에서 압승,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 대의원 1천191명보다 10명 이상 많은 1천205명을 기록하며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힐러리는 텍사스와 오하이오 두 곳에서 전패할 경우 경선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오히려 두 지역 모두에서 천금같은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밀어붙이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4일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에레라즈 멕시코 카페'에 유세차 들러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올 8% 성장...긴축통화 정책"

전년대 개략...후진타오 집권 2기 공식 출범

원자번호 중국 총리가 5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년대) 1차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는 물가상승 억제와 외환통화정책 도입 등 올해의 경제정책을 골자로 하면서도 재난시스템 확립, 농촌개혁, 행정관료체제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다음은 원 총리가 제시한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긴축 통화정책 천명>=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 수준으로 제시하고 거시적 조정을 통해 경제의

품의 생산 발전 <공공업 양극과 식량수출의 엄격한 통제 및 비축 체계의 견고화 > 정부 차원의 자원성 제출 및 공공서비스 가격의 엄격한 통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대한 조경제도 개선 > 시장가격의 감축 강화 <농업생산자 가격의 빠른 상승 억제 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농촌 개혁 및 환경보전 강화>=농업 발전과 농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양극 생산을 증대시키고 농업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소득 증대의 길을 넓힌다는 목표 하에 <농촌 재정지출 증가 >농업 지원 정책 강화 <엄격한 경차지 보호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美 한국유학생 작년말 10만명 돌파

출신 국가별 숫자 2년째 1위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이 작년 말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미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따르면 작년 말로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인 학생수는 10만3천394명으로, 미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14%를 차지했으며 출신국가별로 작년에 이어 2년째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06년말의 9만3천728명보다 1년 사이에 1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지난 2004년말 7만3천272명에서 2005년말 8만3천854명으로 12.6% 증가

했고, 지난 2006년에 10.5%가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 또다시 10.3% 증가, 3년 연속 매년 10% 이상씩 급증함으로써 한국의 '교육 엑서터스'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SEVIS에 따르면 한국에 뒤를 이어 인도 출신 유학생이 8만8천51명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중국 7만2천190명, 일본 4만1천853명, 대만 3만2천897명, 캐나다 3만1천866명, 멕시코 1만4천922명, 터키 1만2천632명, 태국 1만1천724명 등의 순이었다. SEVIS의 통계에는 학생비자(F,M)와 교환학생비자(J) 등을 받고 현재 미국의 정규 대학 및 대학원, 어학 및 직업연수기관 등에 등록된 학생이 모두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北, 두만강 건넌 15명 공개 총살

봄철 월경 예방 경고 조치

북한 당국이 지난달 중국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불법월경 관련자 15명을 공개 총살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5일 전했다. 좋은벗들은 북한 내부 소식지인 '오늘의 북한소식'(제114호)을 통해 지난달 20일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자 2명 여자 13명이 공개처형됐다고 전하고, 총살된 사람들은 "대체로 중국 친척들과 연계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도망하거나 도망하겠다는 이 뜻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도망자를 앞선해주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지는 또 북한 당국이 이번 처형 때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모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지한 데 이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개 처형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한 간부는 "봄철 비법(법) 월경자들이 늘어날까봐 취한 사전 경고 조치"라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이 간부는 "비법월경하는 현상이 매일 발생한다"며 "그래서 사람한테 인식을 바로 주자고 총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한편 중국으로 도망하거나 불법하거나 중국에서 살다가 체포돼 송환된 사람들은 남한문제만 염려된 최고형 3년에 그쳤으나, 지난해 3월1일부터 5~7년까지 형기가 늘어났다고 소식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U, 조세 회피국들과 전쟁 박차

부자들 탈세 규제 나서

유럽연합(EU)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스위스 등 조세회피국들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U 27개 회원국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수십억 유로의 세금을 빼돌리는 탈세 온산인 유럽대륙 조세회피국을 규제하기 위한 싸움에 속도를 낼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순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부자들의 탈세 행각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EU 저축세 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슬로베니아가 관리들이 전했다. 페어 슈타인브뤼크 독일 재무장관은 저축세 지침의 적용 범위를 기금 또는 재단까지 확대하고 모든 EU 회원국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검사들은 자국 부자 수백여명이 리히텐슈타인에 거액의 예금을 은닉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순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등 대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력직원(설계·감리) 모집
당사는 종합감리·건축설계·전기 및 소방설계감리업체로서 금번 신규사업기술 용역 참여등 사세 확장과 더불어 21세기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분 및 자격
구분 분야 인원
감리 분야: 경력: 토목·기계 소방·통신분야 각분야 0명
설계 분야: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 각분야 0명
사무 보조: 현장사무원 (광산우산동현장) 1명
2.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다. 자필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희망연봉 필히 기재)
라. 경력확인서(감리: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전기:전력기술인협회, 기타: 해당경력기관)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2008년 03월 06일부터 해당분야 인원 총원시(03월31일)까지
나. 접수처: 우편번호: 502-180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14(4층)
문의전화: 062-382-7560 (주)지에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FAX: 062-382-7565
다.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FAX전송 및 본인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라.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다기능기술자)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훈련내용: 컴퓨터초급 활용 정보통신망 및 전자회로 실습 광 cable 접속 및 측정 UTP cable 접속 및 측정 정보통신 실무(1개월 현장실습)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통신선로 기술사 정보기기 운용 기술사
자격을: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통신선로 기술사 정보기기 운용 기술사
모집대상: 1. 만 15세이상~65세 미만 (주남, 개업자, 일반실업자, 고용보험가입자) 2. 자립준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3. 2008년 2월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야간대학교 및 방송대학교 재학생
훈련생 지원: 1. 가사, 산업기사 방과후 특별지도 2. 교통비(5만원) 및 식비(8만원) 지급 3. 교재비, 실습비 전액국비지원 4. 훈련중 상의우수자 또는 동일직종 자격증 취득시 장학금 지급 5. 훈련후 채용안정계약 체결 6. 훈련후 동일직종 취업시 기간별 취업장려금 지급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우체국 증명 사본 1부 4. 증명사진 3매(3*4cm) 5. 직업훈련 구직등록증 1부(직업훈련 패라자기 교과이수후 발급)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 062)224-4560

7·9급 공무원
정규이론A반 모집 개강 3월 31일
9급 문제풀이반
www.mdgosi.co.kr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특강
개강 4월 1일
9급 이론 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한빛공무원학원
(062) 252-0252